

올 가을 단막극으로 감성에 몰들다

청춘·로맨스·스릴러 등 장르 다채 JTBC 등 비지상파 라인업 풍성 영화 감독 다수 연출 참여 '기대'

안방에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짧은 시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단막극들이 올가을부터 연말까지 전파를 탄다.

과거에는 KBS 2TV '드라마스페셜'뿐만 아니라 MBC TV '베스트극장' 등 단막극을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가 있었지만 한동안 침체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CJ ENM과 JTBC 등 비지상파에서도 단막극에 뛰어들면서 라인업이 풍성해졌다.

단막극은 하나의 이야기를 축약해서 볼 수 있어 전개가 빠르고 구성도 집약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이자 실험장 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꾸준히 단막극을 선보여온 KBS 2TV는 올해도 '드라마스페셜'을 통해 10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소민이 주연하는 '나의 흑역사 오답노트', 김무열·고보경의 '잊혀진 계절', 윤박이 출연하는 '참치와 돌고래', 최강희와 고준이 주연을 맡은 '너무 한낮의 연애', 권혁수와 다솜의 '미스 김의 미스터리', 장희진·임주환의 '이토록 오랜 이별' 등이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장르도 로맨티코미디와 멜로부터 장르극, 판타지 수사극, 스포츠 드라마, 휴드라마 등 다양하다.

작품들은 이달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한다.

tvN은 CJ ENM의 사회공헌 프로젝트 '오픈' 2기에서 탄생한 신인 작가 10명의 데뷔작을 오는 12월에 차례로 방송한다.

tvN은 오픈을 통해 2020년까지 신인 작가 발굴·육성에 2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미 지난해 첫 번째 '드라마 스테이지'를 통해 10명의 작가가 데뷔했다.

올해 방송될 작품 중에는 현실 로맨스('각색은 이미 시작됐다'), 청춘의 성장담('반야'), 복수('물비늘'), 의문의 사건을 따라가는 장르극('파고·안녕 썩크롤') 등 비교적 친숙한 장르들도 있다.

한편, 살기 위해 5시간 안에 조직의 체크카드를



tvN '드라마 스테이지'
KBS 2TV '드라마 스페셜 - 너무 한낮의 연애'
JTBC '드라마페스타 - 탁구공'(왼쪽 위 부터)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빼내야 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인출책',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공지능 복제품을 아들에게 남기려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린 '굿바이 내 인생보험', 우연히 아이들이 만든 메신저 감옥에 갇힌 30대의 탈출기인 '밀어서 감옥해제' 등 재기발랄한 작품도 눈에 띈다.

특히 올해는 드라마 PD 외에도 이호재, 안국진, 정재인, 신수원, 박정범 등 영화감독들이 연출에 참여해 영화 같은 작품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JTBC 역시 '드라마페스타'를 통해 올가을 2편의 단막극을 내놓는다. '드라마페스타'도 2017 드라마극본 당선작가들과 젊은 PD가 의기투합해 만든다.

그중 배우 유재명과 지수가 주연을 맡은 '탁구공'은 한 청년이 의문의 노숙자를 만나 이루지 못한 지

난 사랑에 대한 동질감을 경험하는 과정, 그리고 그속에서 맞닥뜨리는 혼란과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독특한 형식의 작품이다. 총 2부작으로 오는 17일 밤 11시 처음 방송한다.

'탁구공' 이후 선보일 공명과 소진이 출연하는 '행복의 진수'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진수의 12가지 작은 행복들을 그린 코믹 드라마로 관심을 끈다.

김지일 CJ ENM 오픈 센터장은 16일 단막극의 활성화에 대해 "현재 미니시리즈 등 기존 드라마 형태들이 한계를 맞았다. 결국 단막극의 실험정신이 필요한 때가 온 것으로 본다"며 "특히 젊은 시청자들이 사회 현상과 트렌드를 반영한 신선한 단막극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하나뿐인 내편' 최수종 열연 눈길

첫회 시청률 21~24%

내용은 그야말로 '올드스타일'이었지만 '아버지' 최수종(사진)의 연기만큼은 강렬했다.

17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방송한 KBS 2TV 주말극 '하나뿐인 내편' 첫회 시청률은 21.1%~24.3%를 기록했다.

전작인 '같이 살래요' 첫회 시청률은 23.3%, 최종회는 36.9%였다.

최근 지상파가 중간광고를 허용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KBS 2TV도 하나뿐인 내편 '을 기점으로 평일 미니시리즈에 이어 주말극에 까지 프리미엄CM을 삽입해 눈길을 끌었다.

'하나뿐인 내편' 첫회에서는 영훈(최수종 분)이 강도살인죄로 복역하게 되며 딸 도란(유이)과 연을 끊는 모습이 담겼다. 영훈이 출소한 후 각자 삶을 살아가는 부녀 모습이 담기면서 이들이 어떻게 재회할지 관심이 쏠렸다.

이 드라마는 부녀가 헤어질 수밖에 없던 이유를 빠르게 그려내며 최근 부쩍 호흡이 빨라진 지상파 주말극들과 궤를 같이하지만, 소재만큼은



옛날 드라마 그대로였다. 출생의 비밀이 그랬고, 생활력 강하고 씩씩한 여주인공의 모습도 그랬다.

그럼에도 아버지로 돌아온 최수종의 연기는 인상 깊었다. 그는 정말 짧은 분량만 출연했지만, 내면 깊은 연기를 보여주면서 바로 극 주인공으로 자리잡았다. /연합뉴스

트와이스 '라이키' 뮤비 유튜브 조회수 3억 돌파

'BDZ' 앨범 오리콘 차트 4일째 정상

그룹 트와이스(사진)의 '라이키'(Likely)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3억건을 돌파했다.

트와이스가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6시 발매한 첫 정규 앨범 '트와이스타그램'(Twicetagram) 타이틀곡 '라이키'의 뮤직비디오는 16일 정오 10분께 3억뷰를 넘겼다.

앞서 트와이스는 데뷔곡 '우아하게'(OOH-AHH하게)부터 최신곡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Dance The Night Away)까지 9개 활동곡 모두 뮤직비디오가 1억뷰를 넘기는 기록을 세웠다.

아울러 트와이스가 지난 12일 공개한 일본 첫 정규 앨범 'BDZ'는 오리콘 일간 앨범차트서 나흘째 정상을 지켰다.

멤버들은 'BDZ' 발매를 기념해 일본 4개 도시, 9회 공연의 첫 아레나(경기장) 투어를 연다. 9월 29일과 30일 지바 마쿠하리 이벤트를



시작으로 10월 2일과 3일 아이치 일본 가이시홀, 12일~14일 요코 고베 월드 기념홀, 16일과 17일 도쿄 무사시노무라 종합 스포츠 프라자 메인 아레나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일찌감치 매진됐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청산에 살어리랏다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1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사생결단 로맨스(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연중기획 -빛고를 행복아카데미	00 인간극장 스페셜(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헬로키즈 동물교실 2 55 좌충우돌 만국 유망기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30 제26회 임방울 국악제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선책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2	00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	25 사이닝스타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00 뉴스브리핑
3		00 자충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사이닝스타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00 뉴스브리핑
4	00 특집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꾸러기 식사교실(재) 55 5 MBC 뉴스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15 UHD 스페이스 감열 (재) 20 통일전망대 (재)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00 생방송 빛날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KBS 뉴스 7 35 우리말 겨우기	50 끝까지 사랑	00 비밀과 거짓말 40 특집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볼24 55 제보자들	55 좌충우돌 만국 유망기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러블리 호러블리	00 사생결단 로맨스	00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11	00 KBS 뉴스라인 30 오솔길 김제동	10 안녕하세요	10 아시아의 향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00 이웃집 찰스(재) 50 서울올림픽 30주년 특집 다큐 88/18	35 비바 K리그(재)	10 스포츠 다이어리 25 MBC 가요베스트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커피어드벤처 - 1부 커피의 나라, 콜롬비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닭 연근조림과 고구마줄기 볶음>	16:45 당동맹 유치원1~2(재)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15 마사와 곰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7:30 띠띠뽀 띠띠뽀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8:00 생방송 퓌퓌! 보나하니1~5
07:30 띠띠뽀 띠띠뽀	13:00 다큐 오늘	19:00 몬카트
08:00 당동맹 유치원1~2	13:10 고양이들 부탁해	19:30 EBS 뉴스
08:30 고고다이나모 공룡탐험대	13:40 배워서 남줄렴(재)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4:30 몬카트(재)	20:40 세계테마기행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브라질 1부>
09:00 뽀뽀뽀 뽀로로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우리동네 이방인 1부>
09:15 뽀로로와 노래해요	15:15 파프리카	21:50 EBS 다큐프라임 <불멸의 마야 1부>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2:45 우리 가족 저리 줄리기-부모성적표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6:15 똑딱맨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36년생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절실한 시점이다. 48년생 길 방향으로 가다미 잡혔으니 사소한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60년생 완곡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교가 필요하다. 72년생 필연임을 알아야 한다. 84년생 대세를 거스르는 것은 매우 불길하다. 행운의 숫자 : 55, 33	午 42년생 방향과 방법의 선택이 길흉을 좌우 하리라. 54년생 지금까지의 진로를 선회해야 할 것인지 고민할 정도로 광장한 자극을 받게 될 것이다. 66년생 끝까지 주의하라. 78년생 투명하고 정확해야겠다. 90년생 강도에 따라 판기를 내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45, 65
丑 37년생 대응 관계에 놓이게 된다. 49년생 복잡한 단단한 인간관계로 인한 시달림이 보인다. 61년생 성심을 다 한다 면 기쁨이 이루어지리라. 73년생 가장 쉬운 것부터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5년생 부하노동하다가는 곤란해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5, 09	未 43년생 신규는 아니 되니 꿈도 꾀서는 아니 되겠다. 55년생 함께 하는 자리에서 실행하는 것이 낫다. 67년생 진행과 정지 간에 한계가 분명해야 한다. 79년생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적인 충일에 힘써야겠다. 91년생 속단은 후회나 실패를 몰고 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1, 35
寅 38년생 살아온 공로가 자신의 입으로 무너질까 걱정된다. 50년생 공존공영의 기반이 성립되는 도량이다. 62년생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는 형상이다. 74년생 앞만 걸음을 기대 하는 마당에 임하라. 86년생 절제 했을 때 진정한 성과를 거둔다. 행운의 숫자 : 72, 79	申 44년생 일반적이고 보편적일 때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56년생 기꺼이 수렴하는 것이 백 번 낫다. 68년생 계속 유지 될 수는 없음을 알아야 한다. 80년생 재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다. 92년생 향후의 달성보다 현재의 유지에 신경 쓸 때다. 행운의 숫자 : 30, 96
卯 39년생 일단 시작해 놓고 볼 일이다. 51년생 무의식적인 대응이 향후의 지속적인 위상을 좌우 해버릴 수도 있다. 63년생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하자. 75년생 재료가 좋아야 대적이 나오는 법이다. 87년생 실질적인 관계를 성립시키는 단계에 이른다. 행운의 숫자 : 11, 11	酉 45년생 고민거리를 해결하다보면 다른 문제도 가닥이 잡힌다. 57년생 아무런 장애도 없으니 속도를 내도된다. 69년생 다수자의 의사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음을 감안해서 대응하라. 81년생 포부를 펼쳐야 할 시기이니라. 93년생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행운의 숫자 : 76, 71
辰 40년생 진행에 따른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52년생 옛 일이 괴롭거나 큰일은 아니다. 64년생 평판을 의식하다 보면 부자연스러울 것이다. 76년생 협조자를 자칭하는 이가 나타나는 판국이다. 88년생 성공이 눈앞에 와 있으니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자. 행운의 숫자 : 60, 84	戌 34년생 경제성부터 헤아리자. 46년생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막바지라고 할 수 있으나 유종의미가 중요하다. 58년생 노후를 가 봐서 전정공공하는 형세이다. 70년생 일방적이려면 무리함을 낳는다. 82년생 핵심 골자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8, 72
巳 41년생 일이 터지기 전에 손을 쓰지 않으면 후회 하리라. 53년생 고생이 거의 끝나가고 있느니라. 65년생 유동성이 강하니 탄력적으로 대처 해야겠다. 77년생 사소 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확인해야 사고를 예방한다. 89년생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0, 77	亥 35년생 평소대로 마음먹고 있던 대로 행동해야 한다. 47년생 생산적인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59년생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71년생 잘 살펴야 하는 국면이다. 83년생 실익이 없다면 급급빨리 선회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87, 26